

- **주요 뉴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최종금리는 5.00% 내외 예상
 - ECB 수석 이코노미스트, 향후 금리인상 폭은 줄어들 전망
 - 중국 인민은행, 주요 대출우대금리(LPR) 동결. 환율 안정 의지 등이 반영
 - 일부 언론, 사우디와 OPEC+는 증산 가능성 협의. 사우디 정부는 해당 내용 반박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금리인상 지속 예상 및 중국의 코로나 19 확산 우려 등이 배경
주가 하락[-0.4%], 달러화 강세[+0.8%], 금리 강보합[+0.0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중국의 봉쇄 조치 강화 및 경제활동 둔화 가능성 등이 원인
 유로 Stoxx600지수는 에너지관련주 약세 등으로 0.1%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이 영향
 유로화와 엔화가는 각각 0.8%, 1.2%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성장둔화 가능성과 통화긴축 지속 전망이 상충
 독일은 ECB의 금리인상 폭 축소 기대 등으로 2bp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359.2원, +4.5원) 0.4% 상승, 한국 CDS 상승

		11/21일	11/18일	전일대비			11/21일	11/18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949.9	3,965.3	-0.39%	국채 금리 10y	미국	3.83%	3.83%	0bp
	유럽	433.06	433.33	-0.06%		독일	1.99%	2.01%	-2bp
	중국	3,085.0	3,097.2	-0.39%		영국	3.19%	3.24%	-5bp
	일본	27,945	27,900	0.16%	CDS 5y	한국	55bp	52bp	3bp
	한국	2,419.5	2,444.5	-1.02%		중국	84bp	79bp	5bp
	달러지수	107.83	106.93	0.84%	위험 지표	EMBI+	-	406	-
환율	유로화	1.0240	1.0325	-0.82%		VIX	22.35	23.12	-3.33%
	엔화	142.07	140.37	-1.20%		WTI유	79.73	80.08	-0.44%
	위안화	7.1653	7.1198	-0.64%	원자재	구리	358.1	363.2	-1.42%
	원화	1,354.7	1,340.3	-1.06%		금	1,739.3	1,750.7	-0.65%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최종금리는 5.00% 내외 예상

- 데일리 총재는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여전히 필요하며, 연방기금금리를 5% 정도(4.75~5.25%)까지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한편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리인상이 실제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
- 금리를 제약적인 수준까지 높이는 과정에서 너무 적게 높이면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으며, 너무 과도하게 높이면 경기침체로 인한 불필요한 경제적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고 첨언
- 한편 12월 FOMC에서 0.75%p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 향후 발표되는 물가지표들이 여전히 강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나타낸다면 0.75%p 인상도 가능하다고 부연
- 클리블랜드 연은의 메스터 총재는 인플레이션 둔화와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활동 유지의 동시 달성을 위해 12월 금리인상 폭이 이전보다 축소될 수 있다고 언급. 시장에서도 다수의 투자자들은 12월 0.50%p 인상을 예측
- 한편 뉴욕 연은에 따르면, 가계의 신용 접근 여건이 전년과 비교하여 소폭 악화(68.2%→67.5%). 가계의 자동차 혹은 주택 구매를 위한 신용 수요는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줄어든 것으로 예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ECB 수석 이코노미스트, 향후 금리인상 폭은 줄어든 전망

- 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금년 12월 및 내년 수차례의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지만 금리인상 폭은 이전에 비해 줄어든 수 있다고 발언. ECB의 금리인상 중단은 없을 것이나, 보유채권 감축과 금리인상 폭 축소는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
- 슬로베니아 중앙은행 바슬레 총재는 ECB가 성장을 억제할 수준까지 금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 통화정책이 중립이 아니라 제약적인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첨언. 반면 포르투갈 중앙은행 센테노 총재 12월부터는 금리인상 속도를 떨어뜨릴 조건이 조성되어 있다고 진단

■ 독일 10월 생산자물가 상승률, 전월비 하락.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 증가

- 10월 생산자물가는 전월비 4.2% 내렸는데, 전월비 하락은 2년 반 만에 처음. 이번 결과는 전기 및 천연가스 가격 하락 등에 기인.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기대가 높아질 수 있으나 인플레이션 문제는 여전히 지속(Commerzabank)

■ 중국 인민은행, 주요 대출우대금리(LPR) 동결. 환율 안정 의지 등이 반영

- 1년 및 5년 대출우대금리를 각각 3.65%, 4.30%로 유지. 전문가들은 위안화의 추가 약세를 방지하기 위해 LPR 동결을 결정했다고 해석.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경제성장 촉진 등을 위해 12월에 5년 LPR이 소폭 인하될 것으로 예상(ANZ의 Xing Zhaopeng)
- 한편 시중은행들에게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경제성장을 위해 중장기 대출을 늘리도록 권고. 신용공급을 통해 투자 및 소비 안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

■ 중국, 코로나 19 감염 급격히 증가. 일부 도심 봉쇄 확산

- 지난 주말 코로나 19 감염자 수가 급증(20일 기준 2만6824명)하면서 남부 대도시 광저우의 일부 인구밀집 지역에 5일 동안의 봉쇄 조치를 결정. 수도인 베이징에서도 감염자 수가 일일 1000명에 육박

■ 일부 언론, 사우디와 OPEC+는 증산 가능성 협의. 사우디 정부는 해당 내용 반박

- WSJ 등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일부 OPEC+ 국가들은 12/4일 회의를 앞두고 일일 최대 50만배럴 증산 여부에 대해 의견 교환. 다만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이번 보도가 사실과 다르며, 자신들은 항상 추가 감산의 준비가 되어있다고 주장

■ 골드만삭스, '23년에도 미국 주가의 큰 폭 상승은 기대난

- 내년 말 S&P500 지수는 4000으로 마감하여 현 수준(11/21일 3949.9) 대비 소폭 상승한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추정. 본격적인 주가 상승은 기업이익 증가세 둔화 및 성장률 하락이 멈추어야 한다고 평가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1/22 현지시각 기준)

-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 및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강연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소매업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첫 실질매출 감소에 직면할 우려 - Financial Times**
(US retailers face first real-term fall in sales since financial crisis)
 - 연말 소비시즌 동안 미국 소매업체의 명목매출은 전년동기비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인플레이션을 제거한 실질매출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1.2%)할 가능성(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 현재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소비 전망을 내놓기 까다로워진 상황. 소비자들은 가격 부담으로 판촉 행사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신용카드 사용을 늘리는 등 소비의지가 꺾이지 않는 모습
 - 대형 소매업체들의 판매실적 예상도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이 엇갈린 가운데 실제 매출은 재고수준 및 가격 전략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평가
-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 증시에 관한 낙관적 인식 확산을 유도 - 블룸버그**
(Wall Street Wants Xi's Money-Minting Markets to Come Back)
 - 금년 중국은 약 20년래 처음으로 연간 외국인 자본유출이 예상. 다만, 최근 당국이 방역 지침을 완화하고 부동산 규제 조치 등을 단행하자 투자자 의견이 긍정적으로 변화
 - Morgan Stanley, BofA, Fidelity 등 유수의 기관들은 중국 시장에 대해 △충분히 낮은 주가 수준 △내년도 경제 회복 전망 △경상수지 축소 추세에 따른 외자 유치 필요성 등을 근거로 긍정적 투자의견을 피력
 - Morgan Stanley는 내년 말까지 MSCI 중국 지수가 14%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정책 기조의 불확실성 △서방과의 대립관계 지속 등을 이유로 여전히 신중론을 견지
- **미국 달러화 약세, 금리인상 완화 기대에너지 가격 하락 등에 기인 - Financial Times**
(The strong dollar slumps)
 - 장기간 상승을 지속하던 달러화지수는 10월 이후 하락세. 미국의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가능성 및 성장둔화 우려 등으로 인한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기대 등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
 - 그러나 에너지 가격 하락이 또 다른 원인일 가능성. 에너지 가격 하락은 유럽의 경기침체 심화 가능성을 악화시키며 유로화 뿐 아니라 엔화 가치에도 긍정적. 또한 마중 관계 개선, 러시아의 핵위협 우려 감소 등 지정학적 요인도 달러화 약세에 일조

■ 미국 국채 수익률곡선 역전, 경기침체 신호가 아닐 가능성 - 블룸버그

(Bond Market's Inverted Yield Curve Has Something for Everyone)

- 역사적으로 국채 10년물 및 2년물의 수익률 역전은 경기침체 신호로 인식. 이는 미래에 경기침체에 따른 금리인하 전망이 수익률곡선에 반영되어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 그러나 최근의 수익률곡선 역전은 경기침체 예상과는 다른 원인에 기인
- 향후 경기가 침체 국면에 진입할 때 뿐 아니라 연착륙 달성에 성공할 경우에도 내년 하반기 이후 금리인하가 예상. 반면 단기적으로 내년 초까지 단기금리 상승 가능성이 높은 편. 이를 반영할 경우 수익률곡선 역전이 가능함을 인지할 필요
- 한편 최근 경기여건이 이전 수익률곡선 역전 시기와 다르고, 점진적 인플레이션 둔화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도 경기연착륙 가능성을 뒷받침

■ 경기 방향성을 알려주는 구리 가격, 구리 수요 증가로 의미 퇴색 - 블룸버그

(‘Dr. Copper’ Is High and May Yet Go Higher)

- 구리 가격은 전통적으로 경기순환에 따라 상승 또는 하락을 나타냈으나, 최근에는 세계경기 부진에도 상승세. 이는 원유와 천연가스에 비해 구리는 원자재 시장에서 관심이 적지만, 친환경 산업 활성화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 향후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가속화될 경우에는 상당한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측
- 최대 광산업체인 BHP는 호주의 구리업체인 OZ Minerals 인수를 추진. 이와 같은 구리광산업체들의 움직임 역시 향후 해당 금속의 수요 증가를 반영

■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 검토, 역내 에너지 시장에 부정적일 우려 - Financial Times

(Europe's gas traders and exchanges warn of futures cap ris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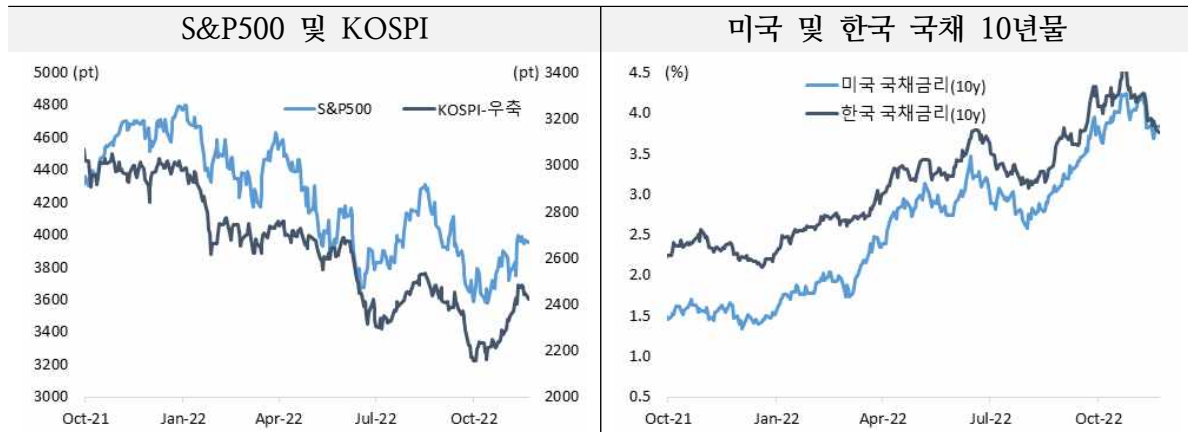
■ 암호화폐의 안정성, 금융시스템처럼 위기 이후 향상될 소지 - 블룸버그

(Want to Know Where Crypto Is Headed? Remember 2008)

■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연준 보다 일부 남미 국가에서 먼저 나타날 전망 - WSI

(Hoping for a Central-Bank Pivot? Forget the Fed and Look South)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